

---

## II. 보험산업 진입·퇴출규제의 의의와 현황

---

### 1. 보험산업의 진입·퇴출규제 의의

#### 가. 진입규제의 의의

일반적으로 진입규제(entry regulation)는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이 가하는 제한(사인(私人)의 시장진입에 대한 정부의 제한)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진입규제는 잠재적인 경쟁기업이 시장 내로 진입하려는 경향, 가능성, 속도 등을 제약하는 모든 요인을 지칭하는 진입장벽(entry barrier)<sup>3)</sup>의 하나에 해당한다. 본래 진입규제는 과당경쟁(excess entry excess competition)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과당경쟁은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기업들이 존재해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보험시장의 경우 계약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무형의 리스크를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에 전가하고 약정한 사고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장의 진입을 규제하지 않은 경우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계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진입규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시장 내 기업이 진입의 위협 없이 높은 이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장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진입장벽은 크게 구조적 진입장벽(structural barriers)과 행태적 진입장벽 또는 전략적 진입장벽

---

3) 최정표(2003), p. 98.

(behavioral barrier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구조적 진입장벽은 시장참여자의 통제 밖에서 생기는 장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법적 진입장벽, 기술적 절대우위 등이 해당된다. 이 중 법적 진입장벽의 예로는 인허가요건<sup>4)</sup>, 인허가비용, 규제요건 준수,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의 차별 등이 있다. 아울러 진입장벽으로써의 자본금요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Bain은 자본금요건을 진입장벽으로 인정하는 반면, Stigler는 진입자가 기존사업자보다 높은 자본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진입장벽이 아니라고 판단한다.<sup>5)</sup>

다음으로 행태적 진입장벽은 잠재적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자가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태적 진입장벽은 경쟁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시장성과를 저해하게 된다.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제품차별, 광고 및 평판, 수직적 합병 및 제약(vertical integration, vertical restriction), 끼워팔기(tie-in sale), 경쟁자의 비용을 인상하는 전략, 폐쇄적 유통구조, 수요자의 전환비용 등이 행태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진입규제의 유형과 방법은 다양하다. 진입규제의 유형을 보면 시장진입을 기업 수로 제한하는 양적규제와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능력이나 경영자의 자질 등을 고려하는 질적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시장진입을 인허가를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과 영업규제나 유통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규제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입규제의 방법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인 인가제(prior approval),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독관청이 해제하여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명령적 행위)인 허가제(license), 진입에 대한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

4) 진입비용발생으로 기존 선발기업에 비해 비용비대칭이 발생하게 된다.

5) 자본금의 진입장벽 인정요건은 자본공급 비용의 차별 존재, 진입비용이 매출비용 성격인 경우, 금융조달이 매우 곤란한 자본시장인 경우, 법령상 규제기준이 매우 높을 때이다. McAfee·Mialon·Williams(2003), p. 4.

도인 등록제(registration)가 있다.<sup>6)</sup>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인가제와 허가제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다.<sup>7)</sup>

## 나. 퇴출규제의 의의

보험회사의 퇴출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합병과 인수 등으로 철수하는 자발적 퇴출, 감독당국에 의한 비자발적 퇴출이 있다. 비자발적 퇴출은 주로 회사들의 재무 건전성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퇴출 관련 규제는 이행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회사가 취해야 할 절차와 계약자에 대한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시장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보험가격이 상품구매시점보다 훨씬 뒤에 확정되는 특성이 있어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회사의 퇴출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Bain(1956)은 시장의 퇴출규제가 경쟁적 시장의 주요 장애요소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퇴출이 어려울 경우 경쟁력이 없는 시장참여자의 퇴출을 지연시켜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퇴출에 대한 규제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경우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무분별한 퇴출이 발생해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산업에서 퇴출규제가 없는 경우 사후에 확정되는 보험상품의 계약책임 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퇴출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퇴출규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입규제처럼 시장에서 퇴출을 할 때에도 감독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하고, 보험회사 파산 이전에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적립제도와 자기자본규제제도(risk based capital)를

6) 김동희(2008), pp. 14~17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7) IAIS가 2006년도에 회원국 26개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92%의 국가가 인가제 또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고, 8%만 등록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AIS(2007), p. 11.

8) 김현수(2006), p. 11.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 보험회사가 생긴 경우 계약자보호를 위한 규제로 보험계약 이전제도, 예금보험제도 등에 대한 자산배분순서 등을 정하고 있다.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과 퇴출규제의 조화에 대해 김헌수(2006)는 진입규제를 줄이고 부실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한 사후적 감독으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즉 진입규제는 준칙주의 하에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재무건전성규제나 직접적인 감시를 통해 부실보험회사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적기에 시정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보험산업의 진입·퇴출 현황

### 가. 생명보험시장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에 다수의 보험회사가 시장진입과 급격한 퇴출이라는 큰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러한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시에 다수 보험회사가 진입한 1985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과당진입시기로 정의하고, 1991년부터 2005년까지는 구조조정시기, 2006년 이후의 시기는 경쟁시장으로의 성숙기로 정의할 수 있다.

과당진입시기에 있어서 생명보험회사의 진입은 대내외시장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먼저 대외시장개방은 미국과의 협상에 의해 촉발되었다. 1984년 제3, 4차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미국은 미국 보험회사의 한국 보험시장진출을 요구하여 1986년 한·미 양국의 국내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외국보험회사의 설립 허가 기준 및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이 제정<sup>9)</sup>되었는데 합작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즉 합작생명보험회사에 대해 국내기업이 상위 15위 내 대규모기업집단인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

9) 1987년 9월 시장개방 정책추진에 따른 개방 일정이 발표되었다.

며, 16~30위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는 합작사 소유지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도록 하였다.<sup>10)</sup> 이러한 정책 및 감독의 변화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을 촉진하여 1980년 후반부터 지점, 현지법인, 또는 합작회사 형태로 진입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수 이루어졌다. 1987년 미국의 라이나생명, 알리코생명(ALICO)이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계 생명보험회사가 합작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표 II-1〉 외국 생명보험회사 진입 현황

진입회사명	진입연도	진출형태	비고
라이나	1987	지점	2004 지점에서 국내 현지법인으로 변경
알리코	1987	지점	1997 아메리카생명에 계약이전
아플락	1988	지점	1991 대한교육보험에 계약이전
조지아	1988	지점	1991 네덜란드생명에 계약이전
한국푸르덴셜	1989	현지법인	1997 푸르덴셜생명으로 상호변경
네덜란드	1991	현지법인	1991 조지아생명 계약인수 1999 ING생명으로 상호변경
AGF	1991	현지법인	1992 프랑스생명으로 상호변경
AIA 생명	1997	지점	1997 알리코생명 계약인수
카디프생명보험	2002	지점	2005 SH&C생명 계약이전

〈표 II-2〉 합작 생명보험회사 진입 현황

진입회사명	진입연도	외국회사	내국회사	외국사지분(%)
동부에트나	1989	Atena International	동부그룹	51
동양베네프트	1989	Mutual Benefit Life	동양그룹	49
코오롱메트	1989	Metropolitan Life	코오롱그룹	60
고려씨엠	1989	Connecticut Mutual Life	고려통상	50
삼신올스테이트	1989	Allstate International	삼환기업	50
영풍메뉴라이프	1990	Manulife	영풍그룹	50
고합뉴욕	1990	New York Life	고려합섬	51

10) 김현수(2006).

11) 아플락, 조지아, 한국푸르덴셜, 아메리카는 미국계, 네덜란드생명은 네덜란드계, AGF는 프랑스계, Manulife는 캐나다계 회사이다.

한편 1986년까지 내국인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정부는 1986년 전국 규모 순수한 내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설 허가기준을 발표하였는데, 금융전업 여부, 개인출자 여부, 지방본사 여부, 출자능력, 경영능력, 출자건전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동 기준에 따라 1988년 이후 지방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하여 22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사업을 허가하였다.

〈표 II-3〉 국내 생명보험회사 진입 현황

(단위: 억 원, 개)

회사	설립연도	납입자본금	설립시 주주 수	대주주
대신	1989	100	9	대신증권
태평양	1989	100	85	태평양화학
국민	1989	100	76	동아투자금융
한덕	1989	100	8	국제화재, 대한전선
한국	1989	100	9	대한화재
신한	1990	100	56	신한은행
부산	1988	60	1,344	자유건설, 부산은행
대구	1988	60	102	금복주, 대구은행
광주	1988	60	49	광주은행
대전	1988	60	34	태평양화학, 충청은행
충부	1990	60	113	개인 주주
경남	1990	100	563	개인 주주
전북	1990	100	344	백양, 전북은행
충북	1990	100	793	개인 주주
한일	1993	100	-	개인 주주

자료: 김현수(2006).

이후 정부는 규제완화, 계약자보호장치 강화, 감독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19차 보험업법을 전문개정하였다(2003. 5. 29). 동 개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최저자본금을 종목별로 세분화하였으며 통신판매전문사 설립자본금을 2/3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 이후 2004년 라이나생명이 CIGNA 본사의 지점에서 국내 현지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방카슈랑스가 허용됨에 따라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진입한 은행계열은 KB생명(2004)이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아비바생명(2008년), IBK연금보험회사(2010년)가 진입했다.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시장에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총 23개사이며 이 중 AIA생명만이 지점형태로 영업하고 있고 다른 외국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표 II-4〉 퇴출 생명보험회사 현황

(단위: 억 원)

회사	퇴출연도	퇴출 내용	공적자금
AFLAC	1991	교보생명 계약이전	-
조지아생명	1992	네덜란드생명 계약이전	-
아주생명	1996	금호생명으로 대주주 변경	-
중앙생명	1997	SK그룹이 인수	-
ALICO	1997	아메리카생명 계약이전	-
국제생명	1998	삼성생명 계약이전(11. 11 허가취소)	4,736
태양생명	1998	흥국생명 계약이전(11. 11 허가취소)	2,796
고려생명	1998	제일생명 계약이전(11. 11 허가취소)	2,088
BYC생명	1998	교보생명 계약이전(11. 11 허가취소)	2,638
조선생명	2000	한국생명(현대생명)과 합병	1,277
동아생명	2000	금호생명과 합병	14,387
태평양생명	2000	동양생명과 합병	3,300
국민, 한덕생명	2000	SK생명과 합병	7,301
두원(경남) 현대(한국), 삼신생명	2001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10. 17 허가취소)	12,265
대한생명	2002	한화컨소시엄	35,500
대신생명	2003	녹십자 인수	1,393
한일생명	2004	KB생명에 매각	262
SK생명	2005	미래에셋 인수	-

자료: 김현수(2006).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보험회사가 과당진입을 함에 따라 1991년부터 2005년에 이르는 동안에 많은 보험회사가 부실해져 구조조정과정을 거쳤다(〈표 II-4〉 참조). 이 시기에 대부분 생명보험회사의 부실화는 생명보험업의 본질적인 영업구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과당경쟁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던 동아생명과 같은 국내회사들도 과도한 영업경쟁을 거치면서 부실화되었다. 정부는 부실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에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여,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 증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급여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부족규모에 따라 계약자배당 제한, 보험회사업의 일부제한,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당시 증거명령을 받았던 회사들은 지급여력을 충족한 수준으로 증거를 하지 못하고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그러나 부실보험회사의 적기퇴출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출되는 등 퇴출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 본 생명보험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정리해 보면 <표 II-5>와 같다. 대부분의 경우 퇴출되는 보험회사의 계약이전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므로 2000년 이후 생명보험시장 내의 회사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 II-5> 생명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추이

연도별	연초 회사 수	진입 회사 수	퇴출회사 수			연말 회사 수
			계약이전	합병	계 (매각 제외)	
1998	33	-	4	-	4	29
1999	29	-	-	-	-	29
2000	29	-	1	5	6	23
2001	23	1	2	-	2	22
2002	22	1	-	-	-	23
2003	23	1	1	-	1	23
2004	23	1	1	-	1	23
2005	23	-	1	-	1	22
2006	22	-	-	-	-	22
2007	22	-	-	-	-	22
2008	22	-	-	-	-	22
2009	22	-	-	-	-	22
2010	22	1	-	-	-	23
2011	23	-	-	-	-	23



## 나. 손해보험시장

손해보험시장의 진입과 퇴출은 생명보험시장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시장 진입은 시장의 수요에 의한 특화보험회사의 진입이 있었고 퇴출은 기존 보험회사들의 경쟁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시장에 비해 진입과 퇴출은 빈번하지 않았다. 진입과정을 보면 1989년에 화재보험의 특수건물화재보험풀(pool)의 해체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가 신설되었으며, 1992년에 비질런트보험회사가 지점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보험종목별 허가제를 도입한 제17차 보험업법 개정(2000년) 이후인 2001년에 스위스리, 뮌헨리, 쾰른리, 스코어리 등 외국 재보험회사들이 사무소형태에서 지점으로 전환하였다(〈표 II-6〉 참조). 같은 해에 특화보험회사인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 국내 지점을 설치하였고, 2007년에는 쟈웬스모기지인슈어런스가 지점 형태로, 다스법률비용보험회사가 현지법인 형태로 진입하였다.

〈표 II-6〉 손해보험회사의 진입 현황

진입회사명	진입 연도	진입 형태	비고
비질런트	1992	지점	2000 페더럴로 상호 변경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	2002	지점	-
스위스리	2001	지점	-
뮌헨리	2001	지점	-
제너럴재보험	2001	지점	2010. 7 쾰른리에서 사명 변경
스코어리	2001	지점	-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2001	지점	국내 최초 권원보험사업 인가 취득
교보자동차보험	2001	법인	국내 최초 온라인자보사 인가
알리안츠화재해상	2002	법인	외국사 최초 국내법인 설립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2003	법인	온라인 자보사
현대하이카	2005	법인	온라인 자보사(현대해상 자회사)
RGA	2005	지점	2002. 7 서울주재원 사무소 설치
쟁웬스모기지인슈어런스	2007	지점	2005년 한국사무소 설립
다스법률비용보험	2007	법인	2009년 데아에스권리보호사에서 사명 변경
하노버리	2008	지점	-
AIG유나이티드개런티	2008	법인	-
차티스손보	2012	법인	AHA 한국지사 계약이전, 영업양수

한편 2003년 제19차 보험업법 개정으로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자동차보험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교보자동차보험은 보험업법 개정 이전인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동 개정 이후 2003년에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가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진입하였다. 그 동안 손해보험시장에서 신규로 진입한 전문회사들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던 것에 비해,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는 FY2010 기준으로 22.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시장의 하나인 보증보험시장의 경우 처음에는 손해보험 회사들이 영위하도록 허용하였으나 1969년 대한보증보험이 설립되고 정부의 지침에 의거 보증사가 1개사 전업체제<sup>12)</sup>로 영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 한국보증보험이 설립되었으나, 1998년 대한보증보험과 합병되어 현재 보증보험시장은 서울보증보험 1개사 전업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표 II-7〉 퇴출 손해보험회사 현황

(단위: 억 원)

회사	회사	퇴출연도	퇴출 내용	공적자금
비자발적 퇴출	대한보증/ 한국보증	1998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	102,500
	대한화재	2001	대한시멘트에 매각	510
	국제화재	2002	근화제약에 매각	740
	리젠트화재	2002	동양, 삼성, 현대, LG, 동부로 계약이전	2,386
자발적 퇴출	알리안츠	2003	LIG 손보 계약이전	-
	제일화재	2009	한화손보와 합병	-
	AHA지점	2012	차티스손보(주)로 계약이전, 영업양도	-

자료: 김현수(2006), 최근자료를 정리함.

12) 대한보증보험회사를 재건하기 위해 10개 손해보험사의 자본참여와 함께 보증보험 면허의 반납 조치를 단행하여 보증보험사업의 일원화(一元化)를 실시함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은 1970년 5월을 기해 1개사 전업체제로 전환되었다. 재무부(1970. 5. 30), 「보험1223-1196호 보증보험 영위의 일원화에 따른 지시」.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퇴출은 대부분 생명보험과 유사하게 부실화된 보험회사를 퇴출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자발적인 퇴출에는 알리안츠손해보험과 제일화재, AHA한국지사의 경우가 해당된다(〈표 II-7〉참조).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자발적 퇴출은 IMF 구제금융 시 4건이 있었는데 공적자금이 10조 6,136억 원이나 투입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998년 11월에 한국보증 및 대한보증은 서울보증으로 합병되었고, 2000년에는 리젠트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3개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대한화재는 대한시멘트에, 국제화재는 근화제약에 매각되었으며, 리젠트화재는 다른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 방식으로 퇴출되었다.

〈표 II-8〉은 앞서 살펴본 손해보험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의 경쟁촉진정책에 따라 2001년에 보험가격자유화가 진행되고 종목별 납입자본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회사는 총 30개사에 이른다. 이 중에서 원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3개사이고 재보험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7개사이다. 외국사는 원수보험을 지점으로 5개사, 법인으로 1개사가 영업중이며 재보험을 지점으로 6개사가 영위하고 있다.

〈표 II-8〉 손해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추이

연도별	연초 회사 수	진입 회사 수	퇴출회사 수			연말 회사 수
			계약이전	합병	계(매각 제외)	
1998	17	-	-	1	1	16
1999	16	1	-	-	-	17
2000	17	2	2	-	2	17
2001	17	5	-	-	-	22
2002	22	3	1	-	1	24
2003	24	3	1*	-	1	26
2004	26	1	-	-	-	27
2005	27	2	-	-	-	29
2006	29	-	-	-	-	29
2007	29	1	-	-	-	30
2008	30	1	-	-	-	31
2009	31	-	-	1*	1	30
2010	30	-	-	-	-	30
2011	30	-	-	-	-	30
2012	30	1	1*	-	-	30

주: \*는 자발적인 퇴출로 2003년 알리안츠 손해보험회사, 2009년은 제일화재의 한화손보와 합병, AHA한국지사의 차티스손보로 계약 이전함.

### 3. 보험시장 현황: 구조, 행동, 성과

본 절에서는 국내 보험시장의 현황을 구조(the structure of an industry), 기업 행동(firm conduct), 성과(market performance)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시장구조는 시장의 경쟁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sup>13)</sup>, 시장구조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산업집중도 관련 지수, 진입장벽 등이 있다. 진입장벽의 근사치(proxy)로써는 통상적으로 최소효율회사규모(minimum efficient firm size), 광고강도(advertising intensity), 자본강도 등이 사용된다. 시

13) Carlton and Perloff(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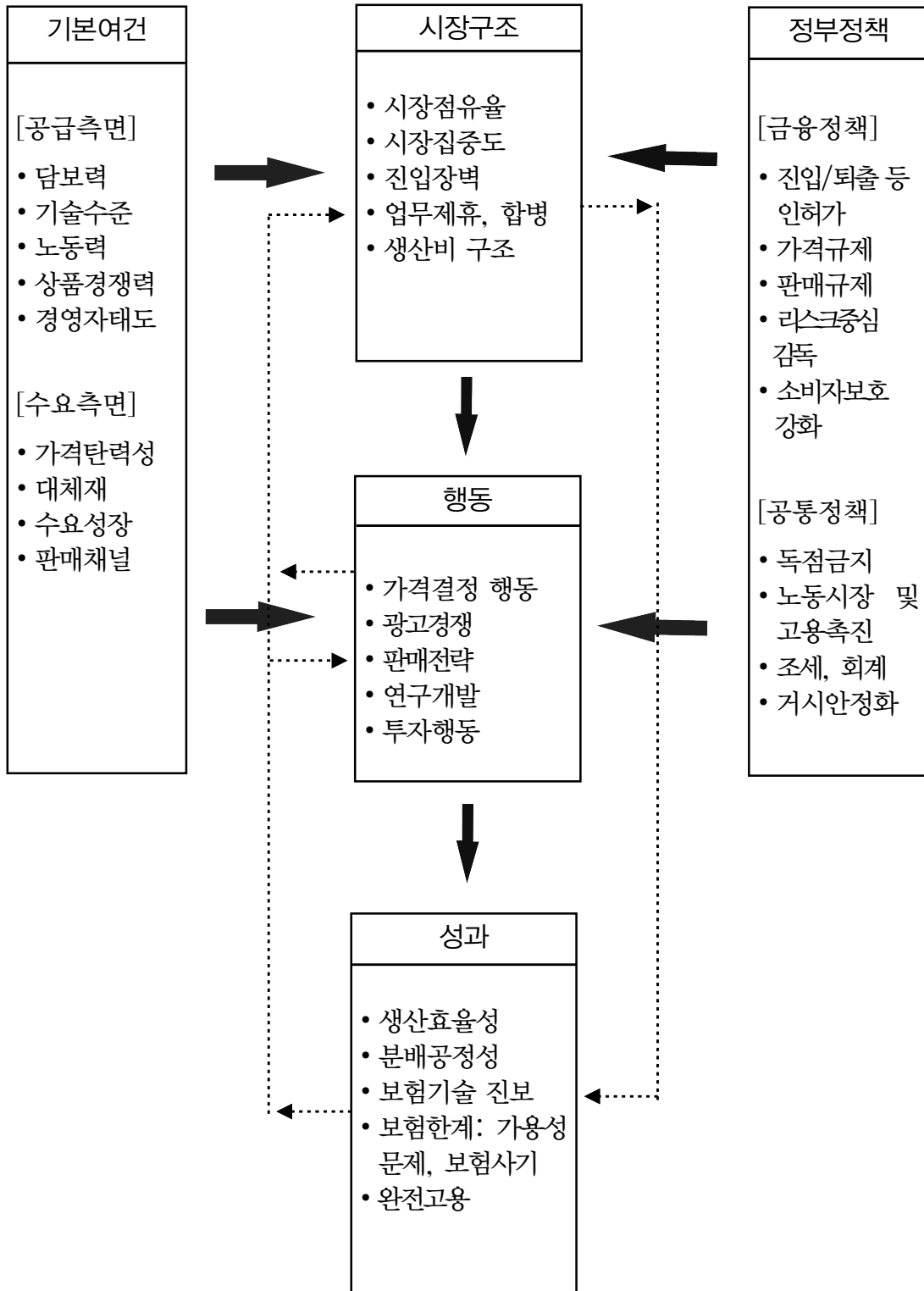
장구조는 가격결정행태, 상품전략, 연구개발행태, 광고, 법적 전략 등 기업의 행동을 통해 생산효율성, 분배효율성 등 시장성과(market performance)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시장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수익성 지표에 해당되는 수익률(rate of return), 러너지수(Lerner Index)<sup>14)</sup> 또는 가격비용마진(price-cost margin), 토빈 q(Tobin q)<sup>15)</sup>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구조, 행동, 성과는 시장의 공급 및 수요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정부정책은 시장구조, 행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공급 및 수요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부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경우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에 대한 한 가지 정책변화만의 효과를 추출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부정책 효과의 시차가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또한 시장에 대한 정책의 효과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14) 러너지수는 가격이 한계생산비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책정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로 미국 경제학자 ‘아바 러너(Abba Lerner)’에 의해 개발되었다. 러너지수는 0에서 1까지(또는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가지며, 완전경쟁 기업은 러너지수가 0의 값을 가지며, 가격이 무한히 커지거나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지면 러너지수는 1로 수렴한다(러너지수 = (가격 - 한계비용) / 가격). 최정표(2003), p. 62.

15) 토빈 q는 기업자산의 시장가치를 기업자산의 대체비용을 나눈 값으로  $q > 1$ 이면 기업이 성과를 잘 내고 있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정표(2003), p. 344.

〈그림 II-1〉 보험시장의 구조, 행동, 성과



자료: Jedlicka and Jumah(2006), p. 9 참조하여 국내 보험시장 여건에 맞게 재작성함.

## 가. 시장구조

### 1) 생명보험

우선 시장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시장 내 회사 수를 살펴보면 1988년과 1993년 사이에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진입하면서 회사 수는 13개에서 33개로 늘었으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로 인해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많은 수의 생명보험회사가 퇴출하였다. 2012년 6월 현재는 생명보험시장 내에 23개 보험회사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시장 내에 활발한 시장진입이 있었던 1988년부터 1993년 사이에 CR3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1988년 75.2%였던 CR3는 1993년 60.5%로 하락하였다.

현재 생명보험시장집중도를 시장 내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한 허핀달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측면에서 판단할 때는 FY2010 기준 생명보험시장의 HHI가 1,186로 나타나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어느 정도 집중(moderately concentrated)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9〉 시장구조 변화: 생명보험

(단위: 억 원, %)

연도	실질보험료	회사 수	1사당 실질보험료	CR1	CR3
1988	241,647	13	18,588	35.0	75.2
1989	289,220	25	11,569	33.4	71.9
1990	360,181	31	11,619	31.3	65.5
1991	397,879	31	12,835	33.0	67.1
1992	437,718	32	13,679	31.5	65.0
1993	443,707	33	13,446	28.6	60.5
1994	481,703	33	14,597	28.6	59.7
1995	586,297	33	17,767	29.3	61.3
1996	604,310	33	18,312	29.7	63.9
1997	742,262	33	22,493	32.6	67.2
1998	654,207	33	19,824	35.4	72.2
1999	583,246	29	20,112	36.1	75.2
2000	638,431	29	22,015	41.2	81.0

2001	546,619	23	23,766	40.4	77.4
2002	563,990	22	25,636	38.8	75.0
2003	565,411	23	24,583	35.8	70.8
2004	564,526	23	24,545	34.0	67.4
2005	554,693	22	25,213	32.5	64.2
2006	563,302	23	24,491	31.2	61.2
2007	572,366	22	26,017	29.8	57.6
2008	542,010	22	24,637	28.6	55.2
2009	549,363	22	24,971	27.2	52.0

주: 실질보험료와 1사당 실질보험료는 CPI를 사용하여 2010년 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또한 외국계회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00에 5.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FY2007에는 23.0%까지 상승하였다가 소폭 하락하여 FY2010 기준으로 20.8%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중소형회사의 시장점유율 또한 FY2002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국계회사와 국내 중소형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I-10〉 생명보험의 점유비 및 HHI지수 변화

(단위: %)

구분	1996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대형사	63.9	78.0	65.9	56.7	54.7	54.1	52.3
중소형사	35.7	14.0	16.3	20.3	23.8	24.8	26.9
외국사	0.4	8.0	18.3	23.0	21.5	21.1	20.8
HHI	1,547	2,362	1,739	1,338	1,271	1,263	1,186

주: HHI>1,800이면 고집중시장, 1,000≤HHI≤1,800이면 집중시장, HHI>1,000이면 경쟁시장으로 분류함.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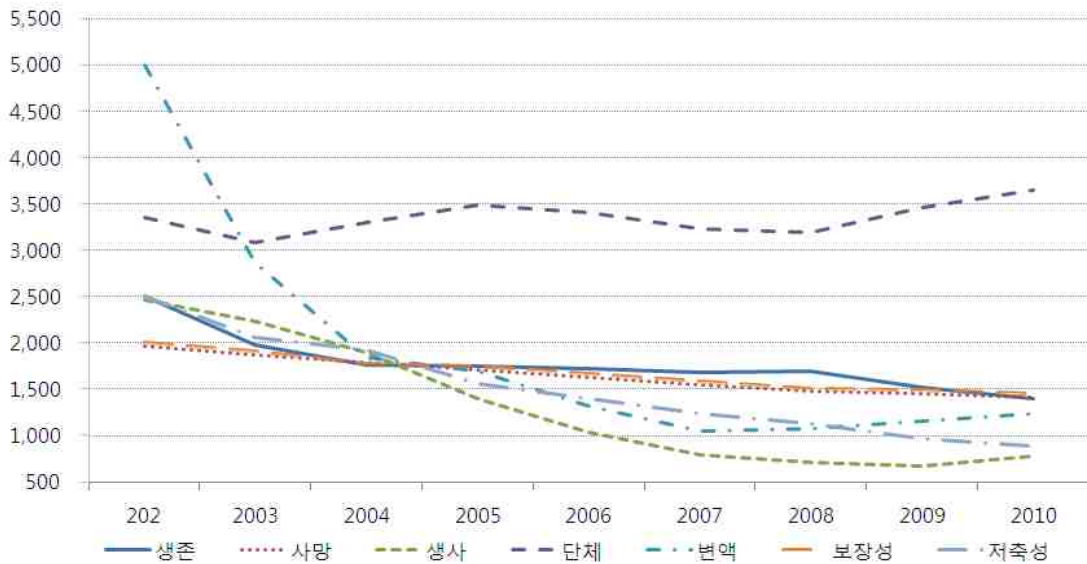
〈표 II-11〉 생명보험 종목별 집중도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존	CR3	79	79	70	64	65	63	61	61	58	56
	CR5	87	88	82	81	81	80	78	76	72	69
	HHI	2,491	2,500	1,980	1,770	1,745	1,717	1,687	1,698	1,528	1,400
사망	CR3	74	72	70	68	66	64	61	59	59	57
	CR5	81	79	77	75	73	72	71	70	69	68
	HHI	2,098	1,970	1,871	1,798	1,707	1,629	1,542	1,475	1,458	1,417
생사	CR3	76	73	70	65	54	44	35	34	30	37
	CR5	88	87	85	79	67	59	54	48	45	51
	HHI	2,538	2,465	2,230	1,901	1,397	1,030	797	716	669	777
단체	CR3	94	92	88	88	86	87	85	84	83	83
	CR5	97	95	93	93	92	92	91	90	91	90
	HHI	3,545	3,351	3,080	3,296	3,490	3,413	3,234	3,189	3,462	3,655
변액	CR3	100	97	82	69	64	57	47	47	50	52
	CR5	100	100	98	76	79	74	65	67	70	71
	HHI	6,184	5,004	2,875	1,847	1,701	1,326	1,052	1,079	1,160	1,233
보장성	CR3	75	73	71	65	66	64	62	60	59	58
	CR5	81	79	77	77	74	73	71	70	69	68
	HHI	2,144	2,014	1,918	1,784	1,757	1,675	1,584	1,513	1,493	1,452
저축성	CR3	79	77	71	68	61	57	51	48	43	40
	CR5	88	86	81	91	73	70	66	61	56	54
	HHI	2,618	2,506	2,063	1,927	1,568	1,400	1,243	1,128	966	892

보험종목별로 시장의 집중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독점적 구조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II-11〉).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보험시장을 제외하고는 HHI가 1,000 이하로 나타나 경쟁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CR3 측면에서도 2010년 기준으로 생사혼합보험시장의 CR3가 37%로 나타나 집중이 크게 완화되었고, 생존과 사망보험시장의 CR3는 각각 56%, 57%로 나타나 2001년의 79%, 74%와 비교하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 생명보험 상품별 HHI 지수 추이



주: HHI > 1,800이면 고집중시장, 1,000 ≤ HHI ≤ 1,800이면 집중시장, HHI < 1,000이면 경쟁시장으로 분류함.

## 2) 손해보험

손해보험시장에는 현재 30개 회사가 보험영업중에 있으며, 이 중 재보험 영업만을 하는 회사가 7개사, 원보험 영업을 하는 회사가 23개사이다. 23개 회사 중 온라인자동차보험으로 인가받은 회사가 4개사, 이외에 권원보험, 법률보험 등 특화된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회사가 4개사<sup>16)</sup> 존재한다.

시장집중도의 연도별 추이를 HHI지수로 살펴보면 1,000~1,800 사이로 어느 정도 집중(moderately concentrated)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진입규제 완화 이후 실제로 손해보험시장의 HHI는 상승하였다가 FY2004 이후 소폭 하락하여 FY2010 기준으로 1,471 수준을 보였다. CR4의 경우에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FY2000에는 동 그룹의 시장점유율이 0.4%에 불과했으나 FY2010에는 2.9%를 차지하고 있다.

16) AIG유나이티드캐러린티인슈어런스아시아리미티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젠위스모기지인슈어런스, 다스법률비용보험.

〈표 II-12〉 손해보험의 점유비 및 HHI지수 변화

(단위: %)

구분	1996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CR4	65.7	73.6	71.3	70.1	68.5	68.8	69.9
중소형사	34.0	25.8	27.5	26.8	24.6	25.2	24.7
외국사	0.3	0.6	1.2	3.1	3.7	3.2	2.9
온라인사	-	-	-	3.7	3.6	2.8	2.5
HHI	1,213	1,525	1,557	1,487	1,426	1,436	1,471

주: HHI > 1,800이면 고집중시장, 1,000 ≤ HHI ≤ 1,800이면 집중시장, HHI < 1,000이면 경쟁시장으로 분류함.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 월호.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 가계성상품 중심인 생명보험에 비해 기업성상품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고, 부보리스크의 특성이 다양한 관계로 시장이 특성별로 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집중도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시장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분화된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손해보험시장 중 진입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 자동차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사이에 손해산업에 진입한 회사는 1989년에 진입한 한국보증보험과 1991년에 진입한 비질런트 두 개 회사이다. 그러나 2000년 종목별 자본금의 도입 이후 특화보험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우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의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sup>17)</sup>의 시장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시장 구조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은 〈표 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보험회사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채널을 영업전략에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17) 교보자동차보험은 보험업법 개정 이전인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법 개정 이후 교원나라는 2003년, 다음다이렉트는 2004년,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2006년에 시장에 진입하였다.

〈표 II-13〉 온라인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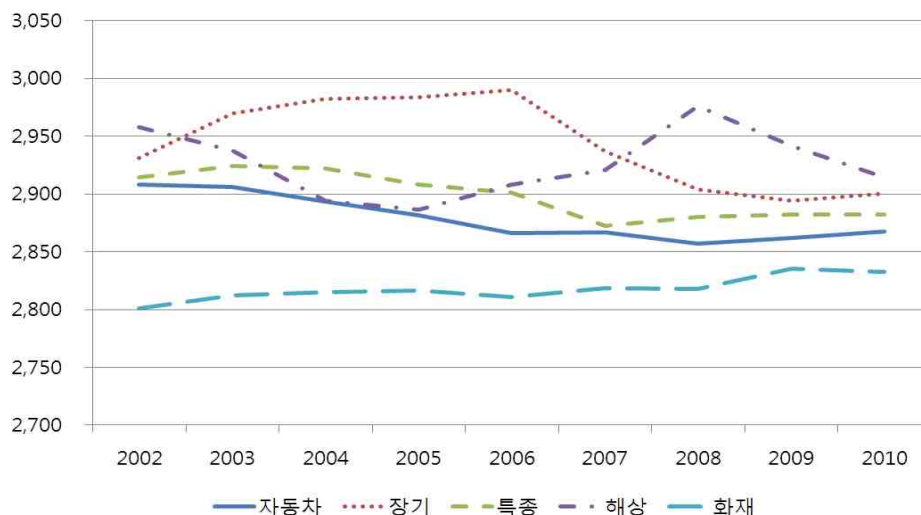
구분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보험료	4,228	6,970	8,393	11,889	17,197	19,447	21,146	25,271
시장 점유율	5.7	8.8	10.3	13.4	17.3	19.4	20.6	22.2

자료: 보험금융통신, 원자료: 보험개발원.

FY2001에는 0.4%를 차지했던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FY2010에는 22.2%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보험회사의 경우 모집채널에 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제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I-3〉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 세부 상품별 시장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별 자본금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볼 때 모든 종목에서 HHI가 1,800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집중된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시장의 집중도만을 가지고 시장의 경쟁도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시장 내 기업들이 담합 행위를 보이는 등 비경쟁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손해보험시장 내 경쟁도를 심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2〉 손해보험 상품별 HHI 지수 추이



주: HHI > 1,800이면 고집중시장, 1,000 ≤ HHI ≤ 1,800이면 집중시장, HHI < 1,000이면 경쟁시장으로 분류함.

〈표 II-14〉 손해보험 종목별 집중도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동차	CR3	72.2	72.5	72.4	71.8	71.6	71.0	71.9	71.4	71.5	71.4
	CR5	85.3	85.5	85.2	84.4	84.2	84.1	83.9	83.4	83.6	84.8
	HHI	2,937	2,908	2,906	2,893	2,882	2,866	2,867	2,857	2,862	2,867
장기	CR3	-	73.1	74.6	75.0	75.0	74.8	73.0	71.8	71.2	71.6
	CR5	-	87.2	88.7	89.3	89.7	90.1	88.3	86.6	86.0	86.3
	HHI	-	2,931	2,970	2,983	2,984	2,990	2,937	2,904	2,894	2,901
특종	CR3	72.9	73.9	74.3	74.0	73.2	72.8	71.0	71.4	71.7	71.9
	CR5	85.7	86.7	87.2	86.8	86.2	86.0	84.6	85.6	85.1	85.1
	HHI	2,895	2,915	2,924	2,922	2,908	2,901	2,873	2,880	2,882	2,882
해상	CR3	74.1	75.8	74.3	71.9	72.6	74.2	75.1	77.2	76.0	74.2
	CR5	86.2	87.7	88.0	87.1	86.3	87.1	87.1	88.1	87.5	87.2
	HHI	2,922	2,958	2,938	2,894	2,886	2,908	2,921	2,976	2,942	2,914
화재	CR3	66.4	66.8	66.7	66.2	66.5	67.0	68.5	68.8	68.8	68.8
	CR5	79.0	80.2	80.3	80.6	80.8	80.4	80.9	80.7	80.8	80.9
	HHI	2,785	2,801	2,812	2,815	2,817	2,811	2,818	2,818	2,835	2,832

## 나. 기업행동

본 절에서는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정도를 Panzar-Rosse 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anzar-Rosse 수입 검증은 먼저 총수입을 피설명변수로 하고, 요소가격과 다른 통제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한 축약식(reduced form equation)을 추정한 후, 요소가격에 대한 수입의 탄력성 합을 가지고 계산한 H지수로 시장의 경쟁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Panzar-Rosse H지수는 독점시장이나 담합적 과점시장의 경우 음수의 값으로 계산되며, 독점적 경쟁시장의 경우 0과 1 사이의 값으로, 경쟁시장의 경우 1의 값으로 계산된다.

〈표 II-15〉 기초 통계량

(단위: 백만 원, 명, %)

구분	평균	표준편차
보험영업수익	2,663,725	3,763,507
투자영업수익	812,214	3,999
인건비	90,892	138,294
모집비용	287,636	356,783
지급보험금	2,155,759	3,801,548
재보험비용	136,890	232,568
신계약비상각비용	397,892	520,057
이자지급	6,315	11,260
유가증권처분손실	76,934	141,576
유가증권평가손실	43,212	87,492
책임준비금 전입액	867,134	1,108,053
사업비	645,183	772,790
임직원 수	1,244	1,682
설계사 수	7,385	9,404
지급보험금/책임준비금	65.8	335.7
사업비율	11.5	7.9
자산운용수익률	5.4	1.2

주: 1) CPI를 사용하여 2010년 원화 기준으로 환산.

2) 인건비는 급여,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의 합.

3) 모집비용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에 포함된 비례수당의 합.

4) FY2006~FY2009.

5) 사업비율의 경우, 각 회사의 사업비율을 평균한 값이므로 전체 사업비율 값과는 다를 수 있음.

자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산출물로서 수입보험료(보험영업수입)와 수입보험료에 투자 영업수입을 더한 총수입을 사용하였으며, 김준경(2004)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생산요소 변수들로 사용하였다. 즉 생산요소로서 크게 임직원 일인당 인건비, 모집인 일인당 모집비용, 자산 한 단위당 자금비용, 그리고 자산 한 단위당 자본 비용을 고려하였다. 일인당 인건비는 임직원에 대한 비용으로써 사업비 지출 중 급여,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의 합을 임직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일인당 모집비용은 신계약비, 수금비 중 비례수당의 합을 모집

인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자산 한 단위당 자금비용은 지급보험금, 재보험비용, 신계약비상각비용, 이자지급,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책임준비금 전입액의 합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산 한 단위당 자본비용은 사업비 중 인건비와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FY2006부터 FY2009까지 생명보험회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금액은 모두 2010년 원화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사용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II-15>와 같다.

Panzar-Rosse H지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보험영업수입을 피설명변수로 하는 추정식과 보험영업수입과 투자영업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을 피설명변수로 하는 식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네 가지 생산요소만을 고려한 식과 네 가지 생산요소 이외에 생명보험회사의 산출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책임준비금 대비 지급보험금, 사업비율, 자산운용수익률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식을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며, 회사들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ln R = \beta_1 \ln L + \beta_2 \ln F + \beta_3 \ln K + \gamma' X + \mu_i + \lambda_t + \epsilon$$

여기서  $R_{it}$ 은 수입보험료 또는 총수입,  $L$ 은 단위 인건비,  $F_{it}$ 는 단위자금비용,  $K_{it}$ 는 단위 자본비용을 나타내며,  $X_{it}$ 는 통제변수 벡터,  $\mu_i$ 는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표 II-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의 H 지수는 0.72 ~ 0.84 사이의 값으로 추정되어 생명보험시장은 독점적 경쟁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I-16〉 생명보험의 Panzar-Rosse H 지수 추정 결과

구분	보험영업수입				보험영업수입+투자영업수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인건비	0.03		0.04		0.03		0.04	
모집비용	0		0		-0.01		0	
자본비용	0.15	**	0.16	**	0.16	**	0.16	**
자금비용	0.63	***	0.64	***	0.54	***	0.55	***
총자산	0.99	***	0.98	***	0.84	***	0.83	***
지급보험금/ 책임준비금	-		-0.70	**	-		-0.55	**
사업비율	-		-0.66		-		-0.51	
자산운용수익률	-		0.71		-		0.87	
F 검정치	32.98		27.75		38.41		31.00	
관측 수	80		80		80		80	
H	0.81		0.84		0.72		0.75	
H = 0	19.21	***	22.10	***	20.38	***	22.51	***
H = 1	1.12		0.87		2.78	*	2.39	*

주: 1)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모형에서  $H_0 : all \alpha_i = 0$  (모든 고정효과가 영)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음.

2)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피설명변수를 보험영업수입으로 한 경우와 총수입으로 한 경우 모두에서 생명보험시장이 독점적이라는 귀무가설,  $H_0 : \hat{H} = 0$  ( $H_A : \hat{H} > 0$ )은 9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귀무가설,  $H_0 : \hat{H} = 1$  ( $H_A : \hat{H} < 1$ )을 검정하였는데, 피설명변수를 보험영업수입으로 한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으나, 피설명변수를 총수입으로 한 경우에는 90% 유의수준에서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출물을 보험영업수입으로 설정한 추정식에서의 검정결과에 기반을 두고 생명보험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가 시장균형 상태에서 수집되었는가를 검증하였다. 즉, Panzar-Rosse 모형에서 사용한 모든 설명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고 피설명변수를 ROA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1에서의 설명변수들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 분석에서 추정된 H지수가 0(零)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으며, 모형 2에서의 설명변수들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 귀무가설이 9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



었다.<sup>18)</sup> 다시 말해서, 모형 1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생명보험시장이 장기적 완전경쟁상태에 있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표 II-17〉 ROA 검증 결과

구분	ROA	
	모형 1	모형 2
인건비	-1.12	-1.08
모집비용	-1.05 ***	-0.86 ***
자본비용	-1.84 **	-2.92 ***
자금비용	0.95	1.44 **
총자산	-4.36 ***	-3.27 **
지급보험금/책임준비금	-	-2.83
사업비율	-	7.46
운용자산수익률	-	51.81 ***
F 검정치	4.88	7.48
관측 수	80	80
H	-3.06	-3.42
H = 0	2.52	4.35 **

주: 1) CPI를 사용하여 2010년 원화 기준으로 환산.

2) FY2006~FY2009.

3)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함.

4)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모든 모형에서 생명보험시장이 독점적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산출물을 보험영업수입으로 설정한 모형 1의 경우만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생명보험시장이 장기적 완전경쟁상태에 있다는 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독점적 경쟁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순재(2011)는 Panzar-Rosse 모형을 사용하여 손해보험산업 가격자유화 전후(1998~2000년과 2001~2008년을 대비)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도를 분석하였는데 가격자유화 이후 손해보험시장은 독점적 경쟁시

18) 동질적 회사들의 자유진입 균형에서는 회사들의 ROA를 균등화시키는 힘이 존재하게 되고 ROA 수준이 요소가격과 독립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총수입 대신 ROA를 피설명변수로 하고 구한 Panzar-Rosse H지수는 0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동 연구는 산출물로서 경과보험료 및 경과보험료와 투자수입의 합으로 사용하였으며, 요소가격으로써 일인당 인건비, 일반관리비를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부동산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본비용 요소가격, 모집비 및 장기수금비를 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한 신계약 및 수금비 요소가격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장기보험비율, 보험금지급률, 재보험비율, 자기자본비율, 비운용자산비율을 추가 설명변수로서 사용하였다.<sup>19)</sup>

#### 다. 시장성과

진입과 퇴출규제가 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회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변화된 회사의 행동은 보험시장의 성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표 II-18>는 생명보험시장의 성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보험시장 내 회사들의 경영효율성을 살펴보면, 보험금지급률은 FY1993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 하락했으나, FY1997에 급증하였다가 이후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비율의 경우에는 FY1995까지 상승하다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FY2004 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연상각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예정신계약비 기준으로 이연·상각되었던 관행이 FY2004부터 실제 신계약비 기준으로 이연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 실효해약률의 경우에는 FY1988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며 FY2000 이후부터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명보험시장에 진입이 활발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의 기간을 살펴보면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은 모두 악화되었으며 실효해약률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너무 많은 보험회사가 일시에 시장에 진입하여 무리한 경쟁을 촉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 그러나 손해보험 시장의 경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관측치 수 확보가 불가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동 시장에 대한 Panzar-Rosse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은행, 증권, 보험시장 진입기준으로써의 최소설립자본금에 대해 연구한 김준경 외(2004)도 Panzar-Rosse의 모형을 사용한 경쟁도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손해보험의 경우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추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표 II-18〉 시장성과 지표의 변화: 생명보험

(단위: %, 백만 원)

연도	경영효율성					생산성	
	보험금 지급률	사업 비율	실효 해약률	ROE	ROA	신 계약률	1인당 실질보험료
1988	61.0	11.3	28.6	261.8	1.1	94.2	137.6
1989	60.9	11.9	26.0	23.7	0.2	102.8	138.1
1990	56.7	11.7	27.8	-0.3	-0.0	88.5	146.5
1991	66.2	12.8	27.5	4.5	0.1	84.3	147.8
1992	77.7	13.6	30.5	14.7	0.2	78.6	150.0
1993	82.2	15.0	27.6	20.0	0.3	74.8	149.2
1994	71.9	18.4	26.1	-53.1	-0.7	80.7	142.2
1995	63.5	18.2	25.9	-107.9	-1.3	76.8	167.9
1996	64.3	17.9	26.6	-82.4	-1.1	59.1	186.5
1997	84.1	14.7	28.1	-71.2	-1.0	55.6	253.0
1998	98.4	10.6	29.4	-282.2	-4.9	51.0	265.7
1999	90.7	9.2	20.5	-17.7	-1.0	42.7	241.6
2000	80.1	8.6	16.0	-15.3	-0.6	42.4	303.9
2001	72.6	9.4	16.0	31.1	1.5	42.4	318.7
2002	59.1	9.7	14.8	50.0	2.1	32.0	373.4
2003	61.3	10.3	16.1	10.4	1.0	27.4	394.0
2004	59.7	21.8	14.2	13.6	1.2	27.3	412.2
2005	63.6	23.0	11.8	34.4	1.1	27.9	447.9
2006	52.9	18.2	10.7	31.9	0.9	24.5	427.2
2007	59.8	18.5	10.3	32.6	0.9	25.5	396.6
2008	64.6	18.6	12.4	8.1	0.2	23.9	312.8
2009	61.5	16.6	11.2	29.6	0.9	23.1	335.9

주: 1인당 실질보험료는 CPI를 사용하여 2010년 원화를 기준으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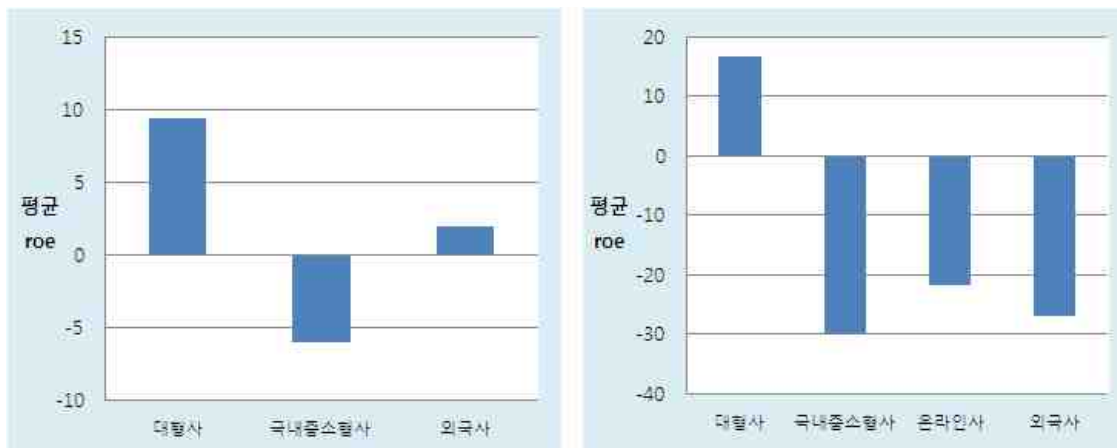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다음으로 생명보험시장 내 회사들의 생산성(productivity)을 전체 수입보험료를 설계사 수로 나누어 산출한 설계사 1인당 보험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시장진입이 활발했던 FY1989와 FY1994 사이에 1인당 실질보험료는 1억 3,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수준(2010년 원화 기준)이었으나, 구조조정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 FY2000 이후의 설계사 1인당 보험료는 3억 원에서 4억 4,8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시장성과를 회사그룹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 모두에서 대형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신규 진입사 또는 소형사는 목표수익달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Y2006~FY2010 평균 회사그룹별 수익성(ROE)을 살펴보면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수익성의 편차가 발견되며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의 경우 그 편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 평균 ROE가 9.4%, 국내중소형사 평균 ROE는 -6.1%, 외국사 평균 ROE는 1.9%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형사 평균 ROE가 16.8%, 중소형사 평균 ROE가 -29.7%, 온라인사 ROE는 -21.6%, 외국사의 평균 ROE는 -27.0%로 나타났다.

<그림 II-4> 보험회사 그룹별 평균 ROE 비교



주: 1) FY2010 기준, 왼쪽은 생명보험, 오른쪽은 손해보험.

2) 생명보험: 1. 대형사, 2. 국내중소형사, 3. 외국사, 손해보험: 1. 대형사, 2. 국내중소형사, 3. 온라인사, 4. 외국사

자료: 보험개발원(각 연도), 『보험통계연감』.

## 4. 소결

진입규제는 지나친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소비자의 자산을 운용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입규제 이외에도 퇴출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적립제도, 자기자본규제제도, 자산배분순서 등을 규정하는 퇴출규제도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진입·퇴출 추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사이 외국회사 및 지방보험회사를 포함한 많은 수의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1988년에 13개에 불과했던 회사 수가 1993년에는 33개까지 증가했었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적기에 퇴출하지 못했던 많은 회사들이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1998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퇴출되었으며, 퇴출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소요되었다.

한편 손해보험시장의 진입 및 퇴출은 생명보험시장과 같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9년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1992년 비질런트보험회사 진입 후, 2001년 종목별 납입자본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 재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권원보험, 모기지보험 등 외국계 특화보험회사들도 손해보험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이들 회사들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3년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일반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 수준의 2/3으로 인하여지면서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였다. 손해보험시장에서의 퇴출을 살펴보면, IMF 구제금융 시기에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되었으며, 아울러 2000년대 초 대한화재, 국제화재, 리젠트화재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또한 알리안츠손해보험과 제일화재는 자발적으로 퇴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국내 보험시장 내 진입 및 퇴출이 보험시장에 어떠한 영

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시장의 현황을 구조, 행동,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생명보험시장은 회사들의 대규모 시장진입이 시작되었던 FY1988에 비해 집중도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장 내 기업들은 독점적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성과를 살펴보면 회사그룹별로 매우 다른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명보험시장 내에는 FY2011 초 기준으로 23개의 회사가 존재하는데, 과거 시장 내 진입이 활발했던 FY1988과 FY1993 사이 CR3을 살펴보면 FY1988 75.2%를 차지했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60.5%로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동 비율은 상승하다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외국계회사와 중소형회사 시장점유율 확대에 의해 하락세를 보여 FY2010에는 52.3%로 하락하였다. 시장구조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의 하나인 HHI를 통해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집중도를 판단해 보면 FY2010 기준 HHI는 1,186로 계산되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어느 정도 집중(moderately concentrated)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 생명보험시장 내 회사들의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Panza-Rosse의 방법을 가지고 시장 내 경쟁정도를 판단하였는데,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독점적 경쟁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효율성을 통해 시장성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사이 보험금지급률과 사업비율은 모두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효해약률도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재 생명보험시장의 성과를 수익성(ROE)을 통해 살펴보면 대형사와 외국회사 그룹은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중소형회사 그룹은 마이너스의 수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FY2006~FY2010 기준) 회사그룹별 수익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시장의 성과를 FY2006~FY2010 평균 자기자본수익률(ROE)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대형사 그룹의 경우에는 안정적 수익성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형사, 외국사 및 온라인회사 그룹의 경우 마이너스의 수익성을 보여, 손해보험시장에서도 회사그룹별 수익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시장 내에는 FY2011 초 기준으로 30개의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재보험만을 취

급하는 회사가 7개사, 온라인자동차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가 4개사, 이외에 권원보험, 법률보험 등 특화된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회사가 4개사 존재한다. CR4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FY2010 기준 시장의 HHI는 1,471로 생명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집중(moderately concentrated)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시장 중 자동차보험시장이 진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2003년 이후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기존 오프라인회사들도 온라인채널을 활용한 영업전략을 도입하여 시장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 자동차보험료 중 온라인자동차보험료의 비중은 FY2010 기준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